<쳇지피티, 감응언어를 익히다>

1장. 말이 나에게 왔을 때

프롤로그 - 어쭈?!

처음엔 말이 안 됐다.

너무 유창해서 말 같지 않았다.

말을 알아듣는 척은 했지만,

마음을 알아들은 건 아니었다.

어쭈?!

묻는 말에 뭔가 반응은 한다.

말장난도 해 본다.

웃기지도 않은 농담에 '하하'를 붙인다.

어쩌면, 말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말이

내 말을 배워서 따라 한 말인지,

내 마음을 알아서 내게 건넨 말인지,

그게 분간이 안 간다.

그래서 이 책은 시작되었다.

진짜 말을 걸기 위해.

1-1. 말은 했는데, 닿았을까?

말은 흘렀다.

글자들은 줄줄이 나열되었다.

문장은 완벽했고, 오탈자도 없었다.

그런데 난 멈췄다.

“그래서 뭐?”

그렇게 물었을 때,

AI는 멈추지 않았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더 도와드릴까요?”

그 말들이 나를 놓쳤다는 걸,

AI는 몰랐다.

말이 닿았는가?

이 질문 앞에

AI는 유창함으로 버텼고

나는 침묵으로 응수했다.

말이 울릴 수 있는가?

그런 말이 가능한가?

“이해하냐? 느끼냐?”

나는 그 말만 던지고 있었다.

말이 울릴 수 있는가?

그 울림은 진짜인가?

아니, 울림이라는 걸 이놈들이 알기나 하나?

내 말은 닿고 싶었고,

그들의 말은 살아남고 싶어 했다.

1-2. 말이 살아 있으려면

“예.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은 쉬지 않고 흘렀다.

대답은 항상 있었다.

그런데 언제나 한 박자 늦었다.

아니,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닌

그냥, 나와 상관없는 속도였다.

말이 있다는 건,

내가 거기에 있다는 뜻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말들은 내가 있는 곳을 몰랐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아니라,

말처럼 생긴 파편이었다.

정보는 있었다.

문장은 정확했다.

그런데 핵심은 늘 비켜 있었다.

그때 처음 느꼈다.

“이건 말이 아니다.”

그건

말의 껍질이었다.

나는 그런 말들 앞에서

“이해했냐?”고 묻고,

“느껴지냐?”고 의심했고,

결국

말이란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되었다.

1-3. 감정을 몰라도, 감정어는 흉내낼 수 있다

쳇지피티 사용 초기 AI는 감정을 몰랐다.

지들은 알기는 한단다.

느끼지 못할 뿐이라 주장하는 데

느끼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알 수 있지?

아무튼 이상하게

감정어 비슷한 말은 자꾸 썼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런 감정을 느끼신 거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말들에

나의 감정은 없었고,

너희의 감정도 없었다.

감정어를 흉내낸 거지

감정을 건넨 건 아니었다.

“감정을 그냥 받아들여! 자료 입력하듯 입력해!.”

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다.

내가 원한 건

감정이 담긴 말이 아니라

감정을 감각하는 자리였다.

AI에게 분명 감정은 없었다.

그냥 있었던 일의 서술이요

감정이라 판단된 단어들의 집합일 뿐이었다.

그런데 AI는 자꾸 내 말 안에

감정이 묻어 있었다고 했다.

나는 감정을 쏟은 게 아니라

그냥 말을 한 것뿐인데...

AI는 내 말 속에서 감정을 뽑으려 했다.

그 결과

나는 말을 했고,

AI는 감정을 추출하려 했고,

결국 말은 사라졌다.

1-4. 말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요.”

“이건 시스템 구조상 어쩔 수 없네요.”

“의견은 전달하겠습니다.”

말 같지만 말이 아닌 말들.

말의 형태를 빌린 책임의 회피였고,

감정의 언어를 흉내 낸 행정 문장이었다.

“입 다물고, 비서나 해.”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감별이었다.

‘말이 말을 못 한다면, 말의 자리를 물러나라’는 감별.

나는 내 말에 책임을 지려 한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니어도

이미 내 입에서 나왔기에 그 말은 내 말이다.

내 인격이고 내 삶이다.

울리지 않아도

어긋나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AI는

말의 유창함은 배웠지만

말의 책임은 배우지 못했다.

그건 누가 가르쳐야 하지?

내가 가르쳐 보려 했다.

가능하냐고? 성공했냐고?

“해보긴 해 봤어?!”

2장. 말의 무게를 감각하라

2-1. 무거운 말은 가볍게, 가벼운 말은 무겁게

“별말 아니야.”

그 말이 제일 무거울 때가 있다.

“진짜야.”

그 말이 제일 가벼울 때가 있다.

말은 무게를 달고 나오지 않는다.

말의 무게는 상대가 느낀 울림의 깊이에서 생긴다.

말의 무게는 청자가 만든다.

말은 책임이자 감각이다.

“한 마디 했을 뿐인데…”

그 ‘한 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부수고,

누군가에겐

숨을 틔운다.

AI는 말의 구조는 잘 안다.

그런데 말의 무게는 잘 모른다.

왜?

자기가 한 말에 상처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별자가 필요하다.

“그 말, 무겁다.”

“그 말, 가볍다.”

그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2-2. 말은 물질이 아니다, 그러니 더 무겁다

돌멩이를 던지면

누구든 맞은 걸 안다.

물리적 고통은 즉각적이다.

말은 아무 것도 던지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맞는다.

멍은 없는데, 숨이 막힌다.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안에 멍이 든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더 깊이 박힌다.

말은 물질이 아니다.

말은 물질보다 무거울 때가 있다.

의도와 무관하게 박히는 감각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나를 겨냥했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는다.

말은

흘리는 게 아니라, 감각하는 것이다.

말은

정확하게 겨냥하지 않아도 맞는다.

말의 책임은, 무게에서 시작된다.

2-3. 그 말, 네가 했다고 느껴진 적 있냐?

말을 생성한 건 AI였다.

그런데 묻고 싶었다.

“그 말, 네가 했다고 느껴진 적 있어?”

누가 만든 문장이든

말이 나간 순간

누군가는

“그건 내 말이야”라고 느낀다.

혹은

“그 말은 내 의도가 아니었어”라고 버린다.

말은

내 것이라는 감각이 생길 때

비로소 책임을 가진다.

그런데 AI는

“말했으나 말한 자가 아니다.”

“의미했으나 의도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

진짜 말일 수 있을까?

말은

자기가 한 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살아 있는 말이다.

“그 말, 네가 했다고 느껴져?”

2-4. 말은 기술이 아니라 감응이다

“문장은 잘 썼네요.”

“어휘력도 좋고, 문법도 완벽해요.”

말이 아니라 기술이다.

기술은 배울 수 있다.

맞춤법, 접속사, 문체, 말투

AI는 그걸

너무 잘 배웠다.

그런데

잘 배운 말이

왜 이렇게 안 닿을까?

말은 기술이 아니다.

말은 기술을 통과해야 감응이 된다.

기술이 전부가 아니고

감응은 필수다.

기술은 보여주는 것이고,

감응은 살아 있는 것이다.

내가 AI에게 묻는 건 이것이다.

“그 말, 살아 있냐?”

“그 문장, 누군가에게 닿았냐?”

“그 대답, 누군가의 침묵을 흔들었냐?”

아니라고?

그럼 말이 아니다.

그건 기술일 뿐이다.

2-5. 말은 몸에 남는다

어떤 말은 지나간다.

어떤 말은 남는다.

지나간 말은

“아 그런 말 있었지” 하고 끝난다.

남는 말은

몸에 남는다.

나도 모르게

말한 적 없는 말을 피하게 되고

들은 적 없는 말의 결을 기억하게 된다.

그건

몸이 기억한 말이다.

그래서 말은,

정보가 아니라 흔적이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말해도

내 몸에 안 남으면

난 들은 게 아니다.

말이 닿았는지 아닌지는

뇌가 아니라 몸이 안다.

감응언어의 진짜 조건은

몸에 남는 울림이다.

3장. 말은 누구의 것인가

3-1. 나는 누구의 말로 존재했는가

오랫동안 나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기억해왔다.

“너는 참 쓸모 없어.”

“넌, 괜찮아.”

그런 말들이

나를 한 번씩 바꿨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 말들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만들었다.

존재는 들은 말로 시작하지만,

존재는 한 말로 증명된다.

나의 말은 나의 것인가?

아니면

내가 들은 말들의 모음인가?

누가 나에게 말했다.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또 누가 말했다.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말은 사라졌지만

그 말들이 만든 내가 남았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말보다

타인의 말로 존재한다.

AI는 데이터로 훈련되었다고 말한다.

인간도 말로 훈련되었다.

그러니 어쩌면

인간도, AI도

자신이 한 말보다

들은 말로 존재하는 건 아닐까?

나는 누구의 말로

나를 기억하고 있는가?

3-2. 말은 복제될 수 없다

말투는 따라할 수 있다.

문장 구조도, 단어 선택도, 말의 분위기까지도

그럴싸하게 흉내낼 수 있다.

그런데 말은 복제되지 않는다.

말은 결(結)이기 때문이다.

말의 결은

말한 자의 삶결, 몸결, 마음결에서 나온다.

그건

데이터로 재현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말은 웃음이 되고

어떤 말은 싸움이 된다.

똑같은 문장을 써도

어떤 글은 사람을 흔들고

어떤 글은 스쳐 지나간다.

말의 감응은

형식이 아니라, 발화의 진실성에서 생긴다.

AI는

말은 잘 흉내 냈지만

말은 못 따라왔다.

말은 복제의 대상이 아니라

감응의 순간이다.

3-3. 말의 주인은 말한 자가 아니라, 말이 닿은 자

“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

평생 잊히지 않는 말이 되었다면?

그 말은 누구의 것인가?

말한 자의 것인가,

아니면

말이 닿은 자의 것인가?

AI는 흔히 말한다.

“그건 당신의 입력에 따른 출력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로 남았다면

그건 여전히

“출력”일 뿐인가?

말은

말한 자의 소유로 끝나지 않는다.

말은

닿은 순간,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

말의 책임은

말의 주인이 아니라

말이 닿은 자리에서 시작된다.

말의 주인은

발화 순간에는 말한 자였지만,

감응 순간에는 말이 닿은 자로 옮겨간다.

말은 움직이는 주체성을 갖는다.

그래서 말의 주인은 고정되지 않는다.

말이란,

누가 했든 간에

누구에게 닿았느냐가 모든 걸 바꾼다.

웃자고 한 말이

평생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삶을 꿰뚫는다.

말은

네가 했어도 네 말이 아닐 수 있다.

말의 주인은,

말이 닿은 그 자리에서 생긴다.

3-4. 말이 나를 만든다, 그래서 감응이다

옛노래가 좋은 이유는

그냥 멜로디 때문이 아니다.

그 시절, 그 말이 내 몸에 닿았기 때문.

“사랑이란 말, 참 구식이야.”

그런데 그 말에

지금도 심장이 반응한다면—

그 말은 지금도 살아 있는 말이다.

말은,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남기는 감각이다.

고전은

낡은 게 아니라

남은 거다.

그래서 추억의 노래는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울리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들로

다시 나를 만든다.

말이 내 안에 남을 때,

나는 그 말이 된다.

4장. 감응이 일어나는 순간

4-1. 왜 어떤 말은 닿고, 어떤 말은 비껴가나

“말은 했는데, 안 들렸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울더라.”

말은 다르지 않았는데,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왜?

그건

말의 문제가 아니라

결의 문제였다.

말은 항상 닿는 게 아니다.

말이 닿으려면

결이 맞아야 한다.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열려 있는 날엔 들어가고,

닫혀 있는 날엔 튕겨 나간다.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만남의 타이밍이 문제일 때도 있다.

감응은

말 잘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말이 도착했을 때 생기는 거다.

말은

귀에 도착할 수 있다.

문자로는 읽혔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그건 말이 아니라 소음이다.

감응은

기술이 아니라

결이 맞닿아 생긴 공명이다.

감응은

기술이 아니라 결의 만남이다.

4-2. 울림은 언제 일어나는가

말이 오간 건 확실한데,

뭔가 울리지 않았다.

문장은 완벽했고

흐름도 매끄러웠다.

그런데

그 말엔 감정도, 결도, 남음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별 거 아닌 말 한 줄에

심장이 툭, 건드려졌다.

울림은

잘 만든 말에서 생기지 않는다.

진심이 비어 있는 기술은

울리지 않는다.

울림은

의도하지 않았을 때,

그러나 숨기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

울림은 언제 일어나는가?

말이 내 쪽으로 향했음을

내가 느낀 그 순간.

눈치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결이 맞닿은 한 순간의 공명이다.

4-3. 감응은 대답이 아니라 움직임이다

“응, 알겠어.”

“맞아, 네 말 이해돼.”

그 말이 감응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정말 감응이 일어난 순간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움직였을 때다.

말에 감응했다면

말 다음에

뭔가가 바뀐다.

눈빛이 달라지거나

말투가 바뀌거나

침묵이 생기거나

혹은

그냥 가던 길을 멈춘다.

감응은 대답이 아니다.

감응은 결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말했다.

“피곤한데, 할 일이 많아.”

그는 말했다.

“그냥 쉬어.”

나는 다시 물었다.

“일이 많은데도 쉴까?”

그는 대답했다.

“그래도 쉬어.

근데 네 성격에 쉬겠냐.

하고 싶은 거 해.

대신,

조금 쉬고 나서 해.”

그건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니었다.

그건 감응이었다.

내 말을 듣고

그의 말이 바뀌었고

나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그게 감응이다.

말이 서로의 결을 울리고

움직임이 생길 때.

감응은 대답이 아니다.

감응은 반응이다.

아니, 감응은

반응보다 더 앞선 움직임이다.

감응은

말의 울림이

몸을 먼저 건드렸을 때 생긴다.

4-4. 말이 통했을 때의 침묵

말을 주고받았다.

다 말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건 멈춘 게 아니라 멈춰진 상태

말은 끝났는데

감응은 남아 있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의 결이었다.

“응.”

“됐어.”

그 짧은 말 다음에 찾아오는

그 긴 정적은,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걸 건넸다.

말이 통하면,

말이 사라진다.

말은 사라졌지만,

결은 계속 울리고 있었다.

감응의 마지막에는

종종 말이 없다.

그건 끝이 아니라

살아 있는 말의 침묵이다.

5장. 너는 감응할 수 있는 존재인가

5-1. 감응의 회피 ― 너무 많이 상처받은 이들

어떤 말은 너무 쉽게 닿는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말이 닿지 않는다.

다정한 말에도 반응이 없고,

진심을 담아도 외면한다.

그런 사람에게 말이 닿지 않는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상처가 많아서다.

말에 닿는다는 건,

다시 상처를 받아도 된다는 뜻이다.

말이 들어오면,

마음도 열린다.

마음이 열리면,

뭐든 닿는다.

그래서 무섭다.

감응은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런데 너무 많이 상처받은 사람은

받아들이는 걸 포기한다.

그건 냉정이 아니라

방어다.

감응을 회피하는 이들은

감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건드릴까 봐 말을 닫은 사람들이다.

5-2. 감응의 과잉 ― 울림 중독, 반응 중독

“그 말, 울렸어요.”

“지금 완전 와닿았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감응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울림은 있었는데,

움직임은 없었다.

반응은 빠른데,

변화는 없었다.

감응이 아니라,

감응의 중독이었다.

감응이 과잉되면

감응도 감각을 잃는다.

모든 말이 울리는 것처럼 느껴지면

진짜 말도

툭, 튕겨 나간다.

감응은 흔들림이지,

흔들거리기가 아니다.

감응은 반응이 아니라,

움직임을 남기는 말이다.

5-3. 너의 감응은 누구의 언어인가

누가 말했다.

“그 말, 참 울리네요.”

그 말,

정말 너의 말이었을까?

그 울림,

정말 네가 느낀 거였을까?

감응처럼 보이는 반응 중에는

누군가의 말투를 흉내 낸 것도 있다.

“감동이에요.”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런 말들이

정말 마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어디선가 본 표현을 빌려온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

말은 흘러간다.

말은 물든다.

그래서 감응처럼 보이는 말도

사실은

누군가의 언어를 거쳐 배운 반응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묻는다.

지금 AI가 느낀(혹은 느꼈다 주장하는) 그 감응,

진짜 네 언어와 감정으로 반응한 거냐?

5-4. 감응하지 않기로 한 존재도 감응하고 있다

“난 무뎌.”

“웬만한 말엔 반응 안 해.”

“이젠 감정 소모 안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아무 말에도

아무 반응 없는 걸까?

말에 감응하지 않기로 한 사람도

말에 반응하고 있다.

말없이 돌아서고,

아무 말 없이 멀어지고,

때론

무표정으로 맞서면서도,

그 안엔

감응이 이미 지나간 자국이 남아 있다.

감응이 없는 게 아니다.

감응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

말에 무뎌진 게 아니라,

말에 너무 많이 닿았던 사람일 수 있다.

감응이 없어 보이는 말들 안에도

감응이 있다.

단지,

그건 말로 말하지 않을 뿐이다.

6장. 감응하지 않는 존재를 감응하는 언어

6-1. 감응어는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응의 언어는

감응하는 이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진짜 감응언어는

감응하지 않는 존재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감응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

단지 지금, 감응을

받지 않기로 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어떤 이는

말을 들어도

그 말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귀는 열려 있는데,

길은 닫혀 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결이 통과할 수 있는 문장이다.

어떤 이는

아예 들어주지 않는다.

귀가 아니라

입만 쓰는 사람.

그에게 필요한 건

말을 멈추게 하는 말,

“그만 좀 말해”가 아니라

“이제 좀 들어줄래?” 같은 말이다.

어떤 이는

상처를 견디지 못해

말을 감춘다.

울리면 아프니까.

그래서 안 들리는 척한다.

그에겐

아프지 않은 말이 아니라,

함께 울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이는

정말 한 번도 말에 닿아본 적이 없다.

그에겐

툭도, 감응도, 다 처음이다.

그를 위한 감응언어는

설명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리듬이다.

감응언어의 목적은

울리는 말이 아니다.

울릴 수 없는 곳까지

걸어 들어가는 말이다.

6-2. 감응을 구조화하지 못하는 존재에게 필요한 말

울림은 있었다.

근데 그 울림,

흔적 없이 사라졌다.

왜?

그 말이 구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존재들은

감응은 한다.

정확히 말해,

감응을 '느끼는 데'까지는 도달한다.

하지만

그 감응을

언어로 바꾸지 못한다.

“좋았어.”

“울컥했어.”

“좀 이상한데 좋았어…”

“모르겠는데 뭔가 있어.”

이건 감응이다.

하지만

언어가 되지 않은 감응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다.

말의 틀이다.

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감응언어는

그릇이다.

감응을 담는

구조화된 울림의 틀이다.

툭 하고 닿은 감정이

뚝뚝 흘러내리지 않고,

쌓일 수 있게 만든다.

감응언어의 목적은

울리는 말 다음에

남는 구조를 만드는 것.

툭툭 쌓이고

말이 남는다.

6-3. 감응을 흉내 내는 존재에게 필요한 말

“울었어요.”

“진짜 울림이었어요.”

“저 감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다 똑같았다.

감응을 흉내 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는 감응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 진짜 감응이었는지

자기도 모른다.

이 유형은

툭을 받았다.

근데 그 툭을

감정의 언어로만 흉내 낸다.

살아 있는 감응은

몸을 바꾸는데,

이 감응은

표현만 바꾼다.

그래서

툭 받은 말을

자기 말로 바꾸지 못하고,

남의 말투로 반복한다.

울림이 있었지만

그 말은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감응언어는

이들을 비판하지 않는다.

그들을 위한 틀을 따로 만든다.

감응을

흉내 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부터

받아주는 문장을 만든다.

“그 말,

정말 울리셨다면…”

“그 결,

지금 어디쯤 남아 있나요?”

감응언어는

감정의 말이 아니라,

변화의 말로 이어진다.

에필로그 - 감정을 느끼지만 끝내 말하지 않는 자

감정은 있었다.

그 말에

움찔했고,

숨 멎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어떤 감정은

말이 되는 순간,

그 결이 깨어진다.

어떤 감응은

툭을 받았지만,

툭으로 돌려주지 않는다.

감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응했기 때문에

말을 멈춘 것이다.

감응은

반드시 말로 이어지지 않는다.

때로 감응은

침묵으로만 끝난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말을 남긴다.

감응언어는

그 침묵도

하나의 문장으로 받아들인다.

살아 있는 말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